



백낙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취재_김성환

‘병원신문’ 창간,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시작
‘협회장의 오너원장’,
‘정책단체’ 시대 열어

22·23대 병원협회장

현 인제대 이사장인 백낙환(白樂煥) 명예회장은 1984년 4월26일부터 1988년 5월4일까지 2년 임기의 대한병원협회장(22·23대)을 두 번 맡아했다.

과거 주로 대학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임기원장’이 회장을 맡아 병원장들의 친목단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오던 대한병원협회는 직전회장(20·21대)인 조운해 당시 고려병원(현 삼성강북병원)장에 의해 ‘오너원장’의 병원협회장시대가 열렸다. 백낙환 당시 백병원장은 조운해 회장의 바톤을 이어 받으면서 ‘오너원장’의 병원협회장시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전의 ‘친목단체’ 위주의 병원협회 기능을 ‘정책단체’로 탈바꿈시키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백 명예회장의 임기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라면 그 첫

번째로서 앞서 밝혔듯이 ‘정책단체’로서의 대전환을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전체 회원병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자체회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병원협회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35-1) 소재 마포현대빌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병원협회 기관지인 동시에 병원계 유일의 전문지인 ‘병원신문(처음엔 ‘병원회보’였음)’의 창간을 큰 성과로 백 명예회장은 꼽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87년 이후엔 신문창간이 비교적 수월해졌지만 병원신문이 창간되던 86년 당시만 해도 신문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웠지요. 비록 창간 이후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회원병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병원계의 실상을 널리 홍보하고, 무엇보다 병원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병원신문’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선 1천여 명이 넘는 병원인들이 참석한다는 병원계 최대의 학술제전인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도 제 임기 중에 시작되었지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병원은 수없이 많은 직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직종은 다르더라도 병원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병원계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이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수가 이미 20차를 넘어섰고, 매년 1천여명이 넘는 병원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병원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뿌듯한 감회를 갖게 됩니다.”

“병원협회장으로 있던 4년의 임기 동안 이렇다할만한 사건이 없어서인지 특별히 생각나는 일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실시된 초기 상황이어서 개선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병원계 상황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좋은 편이었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의 관계도 원활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 명예회장은 ‘병원협회장 임기 동안 특별히 생각하는 일이 없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면서도 “그다지 큰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내자신이 협회장을 맡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저녁에 하던 상임이사회 등 회의를 아침으로 바꾸었는데, 그 결과 이사들의 참석률

이 높아지고, 아울러 병원계 발전을 위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경비절감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병원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보다 요즘 들어 의료에 대한 정부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외형만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몇몇 대규모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아마도 한국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도무지 어찌자는 처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 명예회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료, 특히 병원들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들어 전문병원·개방병원제와 함께 영리법인제 시행에 대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리법인인 그 동안 인제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의료포럼에서 중점을 두고 다루어 온 과제로서 시장개방을 앞둔 우리 병원계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병원들로 하여금 자체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해 늘어난 수익을 재투자해 보다 나은 병원을 만들어 가는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백 명예회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시장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외국의 병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들이 외국으로 뺏어나가는,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 명예회장은 최근 재평가작업에 돌입한 의약분업에 대해 “현시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는 환자 중심이어야 하는데 의약분업은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부담을 키운다”고 말한다. 따라서 특수 전문의약품만 철저하게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의사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

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원내 또는 원외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분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병원협회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병원규모별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단일화된 우리의 협회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병원협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규모별 병원들이 서로서로 이해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도 백 명예회장은 빈틈없이 짜여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 지키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 팔순에 접어든 나이임에도 여느 젊은이 못지 않은 활력과 일에 대한 끊임없는 그의 열정은 모두 운동을 통한 ‘건강 지키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비결은 소식(小食), 다동(多動), 금연(禁煙), 절주(節酒)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다동(多動), 즉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사치가 아니고 음식물의 섭취나 휴식과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운동의 효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운동이 다 좋겠지만, 특히 등산이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싶다”고 말하는 백 명예회장은 요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벽 달리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주말이면 산을 오른다고 한다. **KHA**